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일꾼이 지녀야 할 4가지 정신

람들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한국인들에게는 창조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좁은 국토이다.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다. 이런 나라가 살길은 창조 정신이다. 그간에는 우리 백성들에게 창조 정신이 억압돼 있었다. 창조 정신이야말로 자유로운 정신에서 발로되기 때문이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자유로움이 있기에 그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 정신, 창의력이 발휘케 된다.

개척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경은 개척자들의 이야기이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불굴의 정신으로 중단 없이 나아간 개척자들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모두가 그러했다. 특히 여호수아는 개척 정신에 대한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모세의 대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 적에 항상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적과 더 좋은 무기의 적, 그리고 더 좋은 방비의 적들을 대했다. 그러나 그는 33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완승을 했다. 그의 이런 성공의 비결에는 투철한 사명감과 개척 정신이 무기가 됐다.

‘너희 지파가 수가 많고 능력이 있다면 적은 땅을 너희들에게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산림이 가로막으면 쪼여 넓히고 적이 철 벽거로 무장했으면 정면으로 돌파해 스스로 개척하

라.’라고 일렀다. 우리 시대에 꼭 지녀야 할 정신이다. 어느 뎡가부터 교회는 나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됐다.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개척자들의 이야기와 초대교회 개척자들의 삶과 한국교회 초기의 선배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가야 할 때이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열리고 겨레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신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개척자의 길을 가는 일꾼들을 하느님은 찾으신다.

공동체 정신의 핵심 3가지를 시편 133편에서 일러 준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에서 공동체 정신의 요체 3가지가 들어 있다.

첫째는 형제가 뜻을 같이해 공동체를 이룸이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다 했다.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의 기준이요, 목표다. 둘째는 그 아름다움이 아론의 수염처럼 아름답고 혈문 산의 이슬이 밤사이에 농지에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셔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만큼이나 선하고 아름다

다 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시어 내리시는 복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복이라 했다.

어느 공동체이든 공동체를 이루어 유지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동체 성원들의 이해와 양보, 배려와 인내가 쌓여서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

공격 정신, 아인 정신이 그리스천 일꾼들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공격 정신, 아인 정신이 부족하다. 특히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이런 정신이 부족하다. 아인 정신을 다른 표현으로는 들 사람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아인 정신 혹은 들 사람 정신은 다른 말로는 저항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의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저항 정신이야말로 그리스천이 그리스천답게 하는 본질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착하게만 살아온 젊은이들에게 이런 저항 정신이나 아인 정신이 부족하기 쉽다. 험한 세상에 대해 용기 있게 맞서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교당 안으로 숨는 약함이 있게 되기 쉽다. 그러기에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공격 정신 혹은 아인 정신을 길러 주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천들에게 꼭 있어야 할 정신이라 하겠다.

독자기고

가을철 산행, 안전에 유의하며 즐기자

이재욱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위

요즘 가을장마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곧 가을장마가 지나면 맑은 하늘에는 파란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산과 들에는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가을이 다가온다. 날씨는 서늘해져 이제는 제법 가을 향기가 나고, 나무들은 붉은색으로 곱게 물들어 등산객을 유혹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등산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을은 각종 산악 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을 등산객들은 산악사고 방지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별히 안전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

첫째, 산행 시 관련 기상정보를 파악하기. 가을은 해가 짧고 일몰이 빠르기 때문에 산행 중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일몰 시간과 기온을 알아둬 일몰 전에 하산을 준비하고 저체온증에 대비해 한겨울용 제품은 아니더라도 장갑과 모자 등 여분의 옷을 가져가야 한다.

둘째, 산행코스 미리 알아두기. 등산 전에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산을 선택하고 등산코스를 확인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코스를 잘 안다고 단독 행동을 하지 말고 일행들과 서로 소통하며 보조를 맞추면 산행을 해야 한다.

셋째, 산행 중 음주 절대금지. 산행 중 음주는 소뇌의 운동 기능과 평형감각, 몸의 반사 신경을 둔화시켜 실족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넷째, 비상 약품과 비상식량 챙

기기. 등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압박붕대, 파스,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처치 약품을 챙기는 게 좋다. 또 산행 중 체력이 소진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콜릿 같은 열량이 높은 비상식량을 챙기는 게 좋다.

다섯째, 휴대전화와 예비배터리를 챙기기.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과 같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 번호를 숙지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만약 구조상황이 생긴다면 119에서는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119신고 후 본인이 선불리 길을 찾다 보면 체력도 소모 될 뿐 아니라 119대원과의 만남도 어려워져 구조가 늦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후에는 반드시 소방대원의 지시대로 행동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산행 사고의 대다수는 하산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질환은 발목 염좌와 골절이다. 지치고 긴장이 풀린 상태이고, 평소보다 발목 관절에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초 사고 시에는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일단 붓대를 감거나 부목을 덧대 발목을 최대한 고정해야 한다. 만약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쳤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간혹 부러진 뼈를 맞추다며 상처 부위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뼈 주위의 근육이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 절대 삼가야 한다.

오늘도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알려진 산행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가을 산행이 될 것이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가 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라 광주시민, 힘내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재 손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2m→

간곡재난지원금 대한민정부 광주광역시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